

데스크시각

임동욱



4·11 국회의원 총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광주 서구 을 지역구가 전국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언론사의 각종 여론조사 결과, 서구에 출마한 새누리당의 이정현 후보가 야권연대 주자인 오병운 통합진보당 후보와 선두를 다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광주일보와 KBC 광주방송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서치 뷰에 의뢰, 지난달 24~25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이 후보는 34.5%의 지지율을 얻어 1위를 차지했다.

또한, 지난달 30~31일 실시된 조선일보 여론조사에서는 이 후보가 27.1%의 지지율을, 야권 단일 주자인 오병운 통합진보당 후보는 27.9%의 지지율을 얻어 오차범위 내에서 초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구도 변화 이끌어

대한민국 민주화의 성지이자 야권의 심장인 광주에서 군사정권을 뿌리코 하고 있는 새누리당 후보가 당선권에 근접하는 좀처럼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는 것이다. 실제로 새누리당은 지난 1985년 12대 총선 이후 광주·전남지역에서 단 한 번도 지역구 국회의원을 배출하지 못했

다. 이 후보가 만약 당선된다면 이는 새누리당의 호남 교두보 확보 차원을 넘어 '호남=민주당, 영남=새누리당'이라는 정치

이정현 후보 선전이 주는 의미

권의 견고한 지역 구도를 깨뜨리는 '사건'으로 기록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새누리당 이정현 후보가 이렇게 선전할 수 있는 동력으로 크게 두 가지를 꼽고 있다. 우선, 민주당의 정치적 독점 구도에 대한 지역인의 인내가 한계에 달한데다 투신자살 사태까지 빛은 선거인단 경선 파문 등으로 인한 민주당에 대한 민심 이반이 꼽히고 있다.

또한, 18대 국회 예산결산위원을 4년 연속 지내는 등 '호남 예산 지킴이'로 맹활

약했다는 점도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다. 당을 떠나 일을 잡할 수 있는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민심의 변화가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유력한 대선 주자인 박근혜 새누리당 비대위위원장의 '후광'도 거론되고 있지만 지역 정서를 고려하면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주목해야 할 점은 이 후보의 정치적 '치열함'이다.

지난 2004년 17대 총선에서 이 후보는 한나라당 주자로 광주 서구에 출마, 고작 720표를 얻는데 그쳤다. 득표율 0.65%, 아무리 '맨땅에 떡볶이'를 했다고는 하지

만 정치권에서는 좀처럼 찾아보기 힘든 '전설적인 성격'으로 꼽히고 있다. 웬만한 사람이라면 손을 휘휘 저으며 다니는 광주를 찾지 않았을 것이다.

참담한 성적표를 받아들던 이 후보는 당시 한나라당에서도 '잔반' 신세였다. 그 후 그의 계보에도 속하지 못하고 당내 탈락을 전전했던 이 후보는 '호남'이라는 정치적 자산(?)을 부여받고 오히려 만나는 당내 인사들에게 한나라당의 자체 변화를 주장하며 강렬한 인상을 심었다.

결과, 이 후보는 당시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의 눈에 띄어 '전라도 사투리'를 쓰는 최초의 부대변인으로 발탁된데 이어 비례대표로 18대 국회에 입성했다. 주목할 점은, 새누리당의 정치적 불모지인 호남 출신에 비(非)엘리트, 비주류 당직자 출신이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지내고 수도권이 아닌 광주 서구 을에 다시 출마, 지역구도 타파라는 변화의 흐름을 이끌고 있다는 것이다.

'맨땅에 떡볶이' 정신 필요

이 후보의 당선 여부를 떠나 이 같은 치열함과 도전 의식은 무엇보다 정치적 무경력층에 빠져있는 지역 정치권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유시민 통합진보당 대표는 지난달 23일 전남대 강연에서 "민주당에서 호남 출신(지역구)의 큰 정치인이 나오지 않을 것이다. 그곳은 그들에게 바로 양지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서까래가 될 나무는 양지에서라도 자랄 수 있지만, 대들보가 되는 나무는 양지에서 자란 나무가 아니라 응달에서 자라는 나무"라고 했다.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이 양지의 한계에서 벗어나 정치권 리더십과 비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맨땅에 떡볶이'할 수 있는 과감한 도전 정신과 치열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서울 취재부장) tuim@kwangju.co.kr

시설

청와대 불법사찰 호남인맥 겨냥했다니

이명박 정부의 전방위적인 민간인 불법사찰이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공직자 사찰이 주로 호남 출신에 집중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에 대한 보고 내용은 여타 지역 인사들과 달리 대부분 부정적인 것으로, 현 정부의 호남인맥 축적이와 맥을 같이하는 것이어서 충격이 아닐 수 없다.

본보가 '2008년~2010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작성 사찰문건'을 분석한 결과, 당시 MB정부 및 산하기관에 근무했거나 참여정부 고위관료를 지낸 호남 출신 인사들이 대거 포함된 것이다.

지난 2009년 하명 사건처리부는 함평 출신 윤석윤씨에 대해 "업무 태만 확인 필요"라고 적고 있다. 또 호남 출신으로 DJ정부 시절 농림부 장관을 지낸 김성훈 씨, 참여정부 청와대 홍보수석이었던 이명환장, 순천을 서갑원 전 의원 등

에 대해 펜트하우스를 분양받았으며 비위행위 내사 중인을 적시했다.

경찰 출신들도 예외가 아니었다. 문건에는 흥영기(신안) 전 서울경찰청장 등 고위급 경찰 3명이 민주당에 입당하면서 보인 정부 비란 움직임 등이 낱말이 정리돼 있다. 박진규 당시 대전 동부경찰사장은 호남향우회를 결성해 조직 내 위화감을 조성하고, 지휘권을 무력화하고 있다는 이유로 보고 대상에 올랐다.

의사, 사립학교 이사장 등 민간인도 다수 들어있다. 현 정부와 대립각을 보인 인물은 무차별적으로 사찰대상에 포함시켰다는 사실의 방증인 셈이다.

반면 영남 인사들에 대한 보고서는 "내성적임에도 리더십이 탁월하다" 등 긍정 평가 일색이다. 이게 호남인맥 축이기의 전행이 아니고 무엇이었는가.

정권이 공권력을 이용해 시민을 미행하고 감시한 것은 법치를 뒤흔들며 민주주의를 유린한 중대 범죄행위다. 대통령은 모르쇠로 일관하지 말고 진실을 밝혀야 하며 책임질 일은 응당 책임을 지야 한다.

광주 교통시스템 장애 '관리 부실' 아닌가

지난 2일 아침, 광주시 교통통제 시스템이 전산장애를 일으켜서 시가지 주요 교차로의 신호체계가 마비돼 극심한 정체현상을 빚었다. 출근길 시민들은 지각 사태와 교통사고 위험 등 큰 불편을 겪었다. 이번 교통대란은 지난 2004년 광주교통정보센터가 개소한 이래 지난해 9월 대규모 안전 정전사태 이후 두번째다.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광주시 남구 월산동에 위치한 '광주교통정보센터' 신호 제어 서버 5대 중 2호기가 장애를 일으키며 이날 오전 7시부터 오전 8시 50분까지 1시간 50분 동안 광주 57개 교차로의 신호체계가 마비됐다

이로 인해 광주시 광산구와 서구, 북구 일부 교차로가 평소 출근길 신호체계와 달리 점멸신호가 작동되거나 정지신호가 계속돼 평소보다 3배 이상 정체현상이 빚어졌다. 일부 도로는 차량이 뒤엉키면서 2시간 가까이 발이 묶이고, 중앙선을 침범해 운행하는 차량도 많아

그러나도 경찰은 신속히 대처하지 못하고 인력을 늘려 배치해 시민들로부터 비난을 샀다. 평소 출·퇴근길에는 신호체계가 제대로 작동돼도 교통체증을 빚어온 만큼 좀더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대응이 있었다면 극심한 혼란은 피할 수 있었다.

교통통제 시스템의 전산장애 또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기기 장애란 언제 발생될 수가 있다는 점에서 철저한 사전점검과 관리의 의무나 다름이 없다. 시민의 발과 직결되는 안전시설에 있어서는 더욱 그렇다.

이번 사태는 그 원인이 전산장애라는 점에서 관리 주체인 광주지방경찰청은 면명의 여지가 없다. 경찰청은 정밀 조사를 통해 책임소재를 분명히 가려야 한다. 재발 방지책도 서둘러 내놓아야 한다. 기기에 문제가 있다면 즉시 수리 내지, 교체해 해야 할 것이다. 경찰 스스로 2시간 이상 도로에 묶여 있다고 생각

은평칼럼



김병민

19대 총선이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다. 특히 이번 총선은 올해 말 대선의 전초전의 의미가 있고 어느 정당이든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하면 향후 정국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대선에도 영향을 받을 것이므로 이렇지런 대응으로 여유 여유 모두 사활을 걸고 있다.

여당은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힘 있는 여당후보로야 한다는 지역 일꾼론을, 야당은 우여곡절 끝에 야당연대를 이루었고, 이명박정부의 실정에 대해 냉정하게 심판해야 한다는 정권 심판론을 주장하고 있다. 현재는 새누리당의 제1당 가능성이 힘을

19대 총선과 호남 유권자의 선택

얻는 반면, 민주통합당은 무사안일한 공천과 이에 불복한 공천탈락자의 잇단 무소속 출마로 총선유기론이 대두되고 있다. 정당 지지율도 새누리당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고, 민주통합당은 담보 상태이거나 오히려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는 새누리당이 잘했다는기보다는 민주통합당이 국민의 기대와는 거리가 먼 무원칙하고 감동 없는 공천과 쉐인과 개혁 없는 당 운영에 대한 국민의 냉정한 평가로 보인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을 당의 요직인 사무총장에 앉히고, 저축은행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의원을 공천하는 당을 야당이라고 해서 무조건 지지할 수는 없을 것이다. 민주통합당은 국민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반성하고 국민의 요구를 겸허하게 수용하는 자세를 보여야, 이명박정부의 실정에 따른 반사 이익이 아닌 진정한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전체적인 상황으로 볼 때 선거 막판에 불거진 민간인 불법 사찰 문제 또 북한과의 광명성 위성 발사로 인한 안보 정국의 가능성 등 여러 가지 변수로 인해 결과를 예측하기 더욱 어렵다.

우리 지역의 선거 열기도 어느 때보다 뜨겁고 경쟁이 치열하다. 무엇보다도 지난 선거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새누리당 성향의 후보들의 약진이 두드러지고, 민주통합당 공천 탈락에 불복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한 후보들도 만만치 않다. 특히 광주 서구 을의 새누리당 이정현 후보는 최근 실시한 각종 여론조사에서 1위를 기록하는 기염을 토하고 있다. 이는 호남 예산 지킴이를 자처한 이정현 후보 개인의 노력과 민주당의 공천 실패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서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은평칼럼은 오피니언 기고 최우수작 수상자의 모임인 '은평클럽' 회원들의 칼럼을 실는 코너입니다.

기고



김병수

전남지방우정청장으로 광주에 온 지 달오가 되었다. 그간 광주·전남에 대하여 잘 모르고 지내왔던 터라 이 고장에 대하여 주위분들이 주시는 말씀 하나하나가 귀에 솔깃하다. 그중에 가장 많이 들은 이야기는 남도가 멋과 맛을 느낄 수 있는 문화예술의 고장으로, 예로부터 예향이라 일컬어져 왔다는 것이다.

단편적 경험이지만 지리산이 자리하고 섬진강이 흐르는 동부에서는 남산다운 동편제 관소리가, 영산강이 훗쫄쫄 쉼야를 적시며 흐르는 서부에서는 여성처럼 섬세한 서편제 관소리가 들리는 느낌을 받았다. 아직 가보지는 못하였지만 윤선도의 정취가 서려 있는 보길도, 다산 정약용의 강진 초당은 벌써 나를 설레게 한다. 김영랑·조정재 등 근

예향의 고장 남도와 우체국에 관한 단상

대 이후 한국문학의 대표작가들이 이곳 남도에서 많이 배출되었다는 점은 타지에서 온 사람을 주목하게 한다. 오늘날에도 수준 높은 문화와 예술을 가꾸며 살아오고 있는 남도인들이 부럽기만 하다.

남도문화에 주눅이 들거나 부러움 생각이 들 때마다 남도우체국을 어떻게 하면 문화적으로 가꾸어 볼 것인가? 남도우체국은 남도문화 발전에 어떻게 이바지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보게 된다. 소견에 문화와 예술발전의 요체는 창조에 있으며, 창조는 사물을 다르게 보는 데에서 비롯되지 않는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선 창조적인 우체국 문화를 만들어 가고자 한다. 그래 만나면 새로운 일이 생긴다는 발상에서 기존의 지시위주의 월례회의를 "상상력 대화시간"으로 포맷을 바꾸어 고정된 의자에 앉지 않고 차한 잔을 하면서 동료 간에 왈자지껄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또한 언어가 생각을 좌우한다는 발상에서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의 X축 과학(science)적 측면은 무엇이고, Y축 예술(art)적

측면은 무엇인가를 항상 질문하고 있다. 아울러 동호회 활동도 종래 스포츠 위주에서 예향의 도시 남도의 특징을 살릴 수 있도록 문화예술 부문을 더 많이 지원해 나가하고자 한다.

아주 소박하게는 훌륭한 남도 문화예술인들의 도움을 받아 5000여 남도우체국 사람들의 애환과 기쁨을 담은 공연을 기획하여 남도민들에게 공연해 보이고 싶은 욕심도 있다.

남도가 예향의 도시인 만큼 남도의 건축이나 생활 하나하나 또한 문화예술적이어야 한다고 믿는다. 이런 맥락에서 각 가정이나 아파트에 설치된 우편함에도 디자인의 미학이 있어야 하겠다. 직업이 직업인 까닭에 어디를 가나 우편함에 먼저 눈이 가는 데, 개성이나 미적각각이 다소 부족한 우편함을 볼 때마다 아쉬운 마음이 크다.

그래서 전남우정청에서는 "편지는 사람이요, 사람을 담은 우편함"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지난월부터 4·10일까지 전국민이 참여하는 독특하고 예쁜 우편함 사

진 콘테스트를 개최하고, 우수작에 대하여는 여수 엑스포 우체국에 전시를 하고자 한다. 이번 콘테스트가 예향의 도시인 남도의 멋을 전국민들에게 널리 알리는 데 작은 역할이라도 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요즈음 스티브 잡스가 이야기한 기술에 인문학을 접목하는 것이 화두다. 잡스의 삶을 돌이켜 볼 때 그가 생전에 그간 말하고자 한 요지는 모든 일에 창조적 발상을 지극히 있게 담아내야 한다는 것이 아닌가 한다.

이는 곧 문화예술의 창조과정과 다르지 않다고 본다. 실제로 잡스가 참여한 픽사(Pixar)사의 경우 일반직원들에게도 데생이나 영화제작 등 문화예술교육을 시킨다

라고 한다. 예향의 고장 남도문화의 저력 또한 이와 결코 다르지 않은 곳에서 기원하고 있다고 본다.

(전남지방우정청장)

런 공간이 어디 한두 개라야지 말이다. 호프집, 떡집, 미장원, 약국, 식당, 옷가게, 안경점 등등 너도나도 그런 공간이니 거기에 다친 사람만 바보가 되는 느낌이다.

입간판의 설치를 불법이라고 징계놓았지만 관리 감독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상인들은 입간판을 전혀 스름없이 설치할 뿐만 아니라 일반 행인들도 이 입간판 설치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제대로 좀 관리 감독해서 행인들이 입간판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지 않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지언자·광주시 광산구 운수동

無 等 鼓

UFO와 외계인의 역사는 인류역사가 처음 기록되기 시작했던 시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구약성서에서 예언자 에스겔(Ezekiel)은 "그 바퀴의 형상과 구 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에스겔 1장 16절)라고 말하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에스겔의 UFO 목격담이라고 믿고 있다.

외계인 목격담도 UFO의 그 것만큼이나 유구하다. 다만, UFO는 그 형태와 움직이는 방식이 지구의 물체와는 전혀 다른 반면, 외계인은 눈·코·귀·발·다리를 갖춘 인류와 기 본적으로 닮았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신(神)의 유머감각

'ET'를 비롯해 각종 영화와 드라마에 출현하는 외계인들은 형태가 얼마나 왜곡됐는지에 차이가 있을 뿐 인류처럼 머리로 생각하고, 코로 호흡하고, 입으로 먹고, 손으로 쥐고, 발로 걷는 모습을 하고 있다.

하지만, 생화학자인 클리포드 피코버(Clifford Pickover)는 "어이없게 생긴 갑각류와 찰랑거리는 촉수를 가진 해파리, 압수한 몸인 지렁이와 점균류 등을

보면 신(神)은 유머감각이 매우 뛰어난 것 같다. 다른 행성에 생명체가 살고 있다면 이처럼 어이없는 형상을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밝히고 있다.

또, 우주과학자 칼 세이건도 "지구에서 라디오망원경은 볼까 수심 1년 전에 처음으로 만들어졌으며, 지구에 기술문명이 싹 트는 것도 기껏해야 수백 년밖에 되지 않는다. 따라서 지구보다 수십만, 수백만 년 앞선 외계 문명이 우리와 마주친다면, 그들은 마치 우리가 원숭이를 대하듯이 인간을 바라볼 것이다"고 말하고 있다. 외계인의 실재 모습과 능력은 인류의 상상을 뛰어넘는 것일 수도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최근 미 연방항공우주국(NASA)이 그동안 베일에 쌓여있던 UFO관련 파일을 공개하면서 UFO와 외계인의 존재 여부가 과학적으로 규명될 수 있을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좁은 지구에 가파르게 있는 인류의 '인식'의 지구(地球)가 무한한 우주로 확장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홍행기 정치부장 redplane@kwangju.co.kr

행인에게 피해주는 입간판 관리감독 철저해야

며칠 전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과 함께 시내에 나갔다가 아이가 봉어빵이 먹고 싶다고 하여 2000원어치를 사주었다. 아이에게 봉어빵을 사 준 뒤 아이가 다니는 학원에 들려 볼일을 보고 내려왔더니 아이가 울상이 된 채 서있었다. 봉어빵을 들고 있던 손을 보니 봉어빵을 담았던 종이 봉지가 찢어진 채 입만 벌리고 있었고 그 바닥에 조금 전에 사준 봉어빵이 마구마구 갈바닥에 고스

란히 떨어져 흙이 묻어 있는 게 보였다. 물론 먹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유를 물었더니 내가 큰아이 학원에 잠깐 올라간 사이 이 녀석은 문방구에 들러 떡볶이를 사서 나오던 중 그만 인도에 서있던 모음식점 찰제 입간판에 스치면서 봉어빵 봉지가 찢어져 버렸으며 손으로 가리켰다. 입간판은 모서리가 뾰족하고 날카로운 철제였는데 아이 키만한 크기에 그 양철이 무

光 卍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논설주간	申浩榮
편집국장	曹庚亮	편집국장	曹庚亮
1952년 4월 20일 創設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국독신청·매달내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	222-4918	문화생활부	2200-661
<대표 FAX>	222-4918	여론제부	2200-621
편집부	2200-649	체육팀	2200-697
정경부	2200-612	사진부	2200-693
<대표 FAX>	222-4918	조사부	2200-573
사회부	2200-616	조사팀	2200-571
<대표 FAX>	222-4267	전산팀	2200-685
경명지원국 2200-515 문화홍보국 2200-54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광고미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F A X 227-9500) 디지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기획사업국 2200-555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